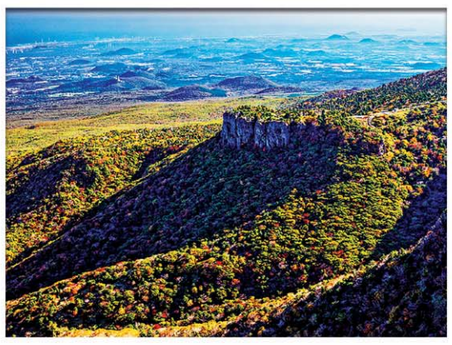

내년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왕관릉과 오름군'.

제주산악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산악박물관 내부 모습. 오은지기자

우수작인 양영민씨의 추억의 사진10 영실코스.

인공암벽 오르기 체험. 한라일보DB

제주 산악역사 한눈에… 산행 정보도 한가득

제주 핫플레이스 (59)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2015년 개관… 관련 유물 542점 보유
공립 최초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故 고상돈·오희준 등 산악인 추모관
인공암벽 오르기·유아 등반 등 체험
시대별로 엿보는 한라산 풍경도 전시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옆에 1종 전문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이 있다. 제주산악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 소개를 비롯해 등산에티켓, 산에서의 걷기요령 등 안전한 산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어 산행 전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다.

산악박물관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및 제주 산악사를 알리고 산악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15년 개관했다. 전시공간, 다목적영상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등산관련 유물 총 542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故 고상돈, 故 오희준 등 제주산악인의 유품 전시관이 마련돼 있어 제주가 낳은 산악인의 불굴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추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립산악박물관(강원도 속초)에 이어 공립으로는 최초로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1종 전문 박물관은 유물 100점 이상과 학예연구사 1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수장고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산악박물관은 향후 전국의 박물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연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산악박물관에 가면 추억의 한라산을 만끽할 수 있는 사진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다.

세계유산본부가 내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실시한 공모 사진 전시회가 이달 말까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라산 경관 사진을 비롯해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추억의 사진 입장작 67점이 전시돼 있어 시대별 한라산의 풍경을 회상해보는 재미도 있다.

산악박물관은 앞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산악박물관 소장품 '그때, 그 한라산'을, 이어 10월까지는 기획전시 제주산악등반발자취 '에베레스트'전을 개최하는 등 한라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산행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를 지속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인공 암벽 오르기를 체험하는 가족등반교실부터, 로프를 타고 공중으로 횡단하는 꼬마대장 유아 등반교실, 산악박물관 및 관음사지소 내 숲 속 유치원 탐험인 어린이원정대를 비롯해 등산장비 퀵드로셋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체험 참여 장비 설치에 시간이 소요돼 예약은 필수다.

자세한 내용은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hallasan.go.kr) 탐방프로그램 예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33) 김경훈 시집 '강정은 4·3이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이 서귀포 강정마을을 출발해 제주섬을 한바퀴 돌며 평화의 바람을 나누고 있다.

"섬의 고된 운명… 그래도 평화의 춤"

'섬의 남용' 군사기지 설립
4·3서 얻은 교훈은 어디에
평화와 인권 유린되는 현장

그가 1993년 처음 내놓은 시집 '운동부족'의 첫머리에 바다가 있다. 그에게 바다는 늘 그대로 있으면서 깊고 넓은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이자 건강한 혈맥으로 흐르는 밑바닥 백성들의 마음 같은 거였다. '바다에서' 그는 어두울 수록 빛나는 양심을 보았다.

제주4·3을 평생의 화두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말해온 시인 김경훈. 줄곧 제주의 4월을 시로 그려온 그는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을 붙들면서 그 바다로 향한다. 거기엔 바닷물로 둘러싸인 '지체(地體)'인 제주섬의 운명이 있었다. '강정은 4·3이다'(2012)에 그 사연이 있다.

'제주4·3의 피와 살과 뼈로 기초된 대한민국에/ 이제는 강정이라는 처녀 하나 제물로 바치라 한다'란 짧은 시 '옛날과 그대로다'로 시집이 열리면 '누가 강정이 4·3 아니라고 하는가'('자존을 위하여')란 질문이 따라붙는다. '누가 감히 강정을 4·3 아니라고 말하는가// 4·3에서 평화와 인권을 배웠다는 이들이여/ 인권이 낭자히 유린되고 평화가 유혈로 깨지는데// 왜 강정은 4·3이 아니라고 하는가'.

제주섬 밖에도 강정이 있다. 2년 전, 제주학연구센터가 주관한 '세계 섬, 해양문화와 미래비전' 국제학술대회에서 소개된 사르데냐 섬이 그랬다. 1921년 영국의 작가 로렌스가 소설 '바다와 사르데냐'에서 "매혹적인 장소들과 여행하기에는 먼 거리.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확고한 것이 없는, 이 땅은 자유 그 자체다"라고 묘사했던 섬이다. 영국에서 온 학자는 지금의 사르데냐가 이상적 낙원 대신에 군사주의 산업복합체와 그것의 기생물에 의해 지구상의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의 발표문 중 일부를 옮겨본다.

"섬지역의 대표적 '남용' 사례는 위험의 외주화를 목적으로 한 군사기지 설립이다.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군사기지의 80퍼센트가 집중된 초고도화된 군사복합단지이다. 오랜 기간 '비밀주의 원칙'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시설과 오염물질의 저장고인 사르데냐의 모습은 생태유토피아 섬의 또 다른 현실이다."

'섬, 공통점'을 통해 논문 대신 문학으로 섬이 처한 이같은 현실을 짚었던 시인은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공동체 파괴와 강요된 희생'('공권력')이 강정이 4·3인 이유라고 시로 새긴다. 그래도 '다른 점 하나' 있다. '어디로든 길이 막혀 온통 절망과 죽음뿐이던/ 그 4·3과 달리/ 강정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평화를 춤춘다'. 일찍이 '다시 바다에서' 긍정의 기운을 읽었던 시인이다. 첫 시집에 실린 그 시엔 '미처/ 아물지 못한 상처를 안고서도/ 한시도 아파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구절이 머문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